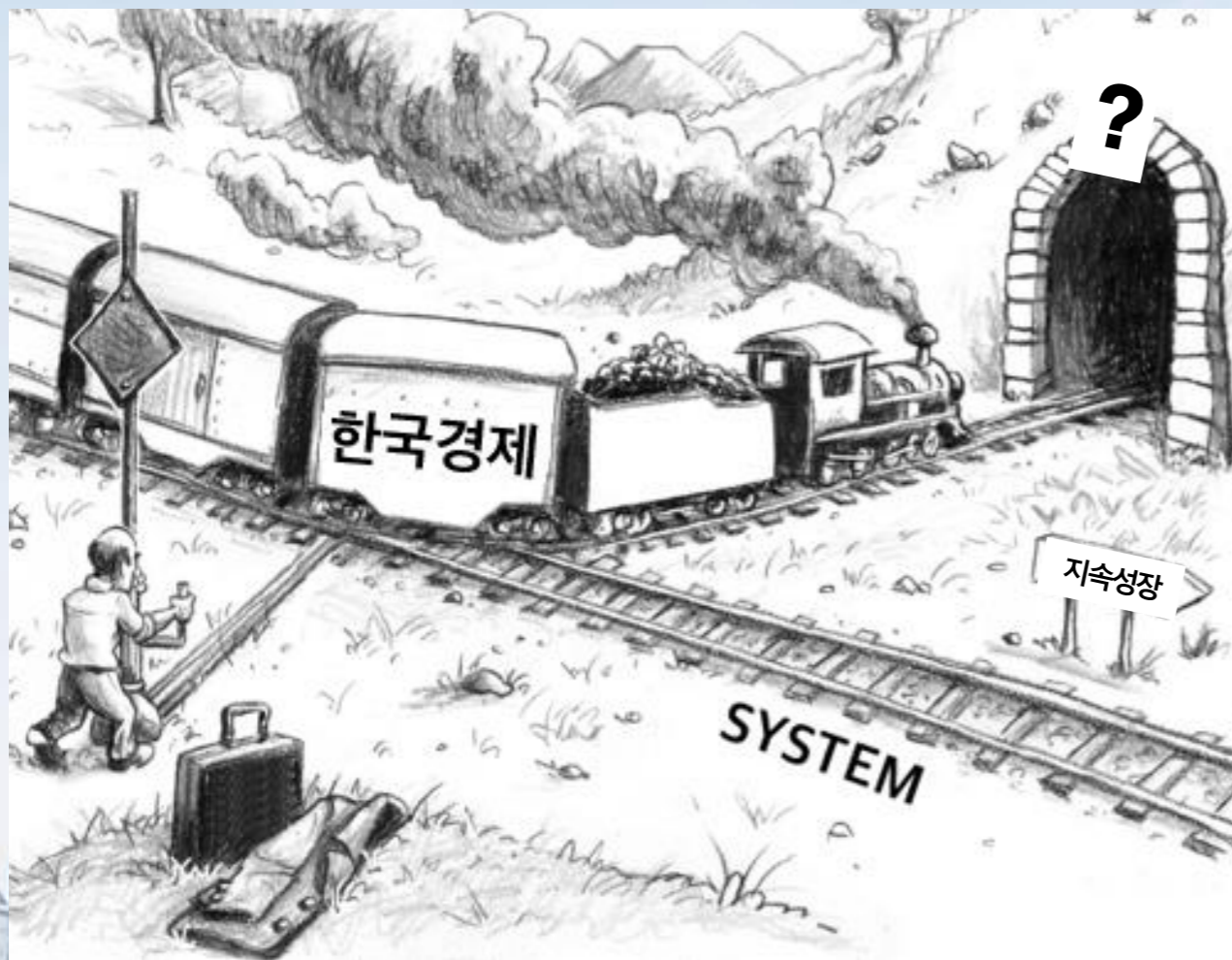


시장경제와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I 기로에 선 한국경제

한국경제라는 기관차는 현재 지속적 발전 궤도에 있는가?
혹은 그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최근 주요 경제지표

	내 용	비 고
실업률	4.5%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제조업 가동률	7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 출	500억 6000만달러	전년 대비 1.5% 감소

*2018. 3월 기준, 통계청



I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① – 길에 대한 생각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못 찾고 있는 지금,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 필요

<진정한 여행(A True Travel)>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 나짐 히크메트 (Nazim Hikmet) -
 터키, 1902 ~ 1962

I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② – 시스템에 대한 생각(1)

남북한 경제발전의 차이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명



■ 남북한 경제력 비교

	명목 GDP	1인당 GDP
남한	1조 4147억 달러	2만 7606달러
북한	311억 달러	1250 달러
	약 46배 차이	약 22배 차이

*2016년 기준, 한국은행

<소득의 불평등도인 지니계수(2016년)>

- ▶ 한국 0.302 / OECD국가 중 상위 11위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보다 지니계수가 낮아)
- ▷ 중국 0.467(중국 국가통계국)
- ▷ 북한?

I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② – 시스템에 대한 생각(2)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의 책임은? (개인 vs 제3제국이라는 시스템)



“당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한 명의 관리였을 뿐입니다.

- 아돌프 아이히만(1906~1962) -

”

I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③ – 위기에 대한 생각(1)

- ▷ 위기의 본질을 알면 헤쳐 갈 길은 있게 마련
- ▷ 어렵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 아님

“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

- 최인호의 소설 「商道」 -

주인공 임상옥의 스승 석송 스님이 그에게 닥칠 세번의 위기를 예언하는 장면에서



I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③ – 위기에 대한 생각(2)

▷ 성공신화에의 매몰을 경계해야 – 일본해군의 성공신화와 붕괴



'대함거포주의' 사상을 가속화 시켰던 러일전쟁 당시 쓰시마 해전(1905년)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장에도 대함거포주의를 고수하여 패배한 미드웨이 전투(1942년)

I 한국경제 오늘의 모습

■ 한국경제의 고성장 신화로 세계 7번째로 20-50클럽 가입

< 20-50 클럽 국가 진입시기 >



1인당 소득 2만366달러
인구 1억2203만명



1인당 소득 2만821달러
인구 2억4497만명



1인당 소득 2만2003달러
인구 5671만명



1인당 소득 2만151달러
인구 5669만명



1인당 소득 2만2693달러
인구 799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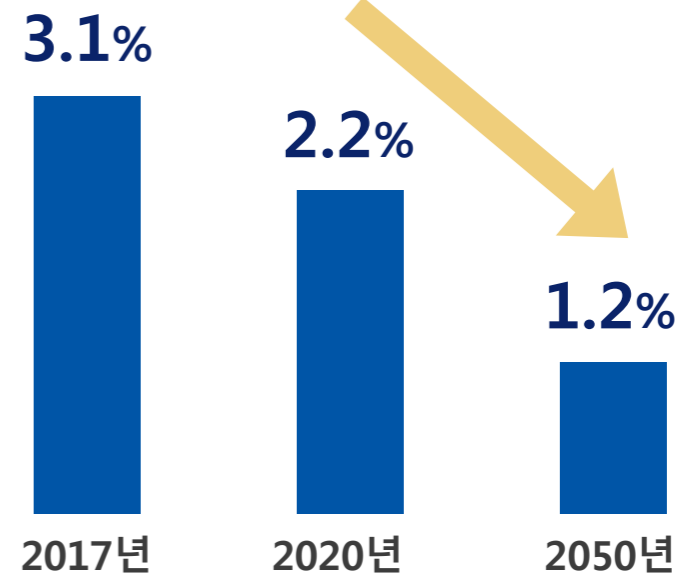
1인당 소득 2만990달러
인구 581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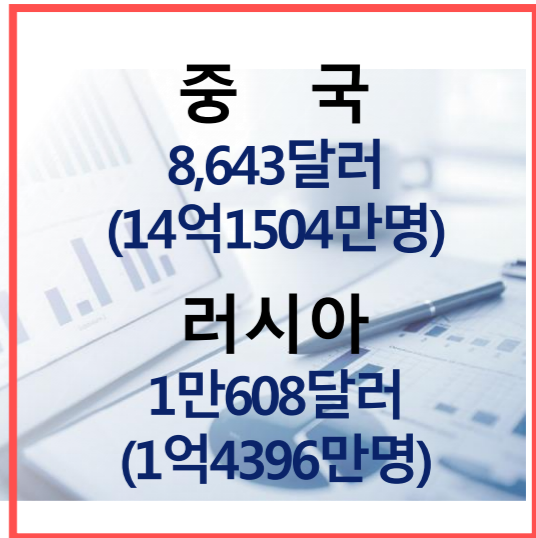
1인당 소득 2만3680달러
인구 5000만명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자료: IMF(2018. 2)



I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의 시장경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사회주의화의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추진



6.25 전쟁 발발 시
UN군 조기참전으로
공산화 극복

박정희 정부의
경제와 기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안정과 시장 위주
경제정책 및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



“역사적으로 시장을 중시한 문명권은 발전했고, 그렇지 않은 문명권은 퇴보했다.”
(F. Hayek, 「치명적인 자만」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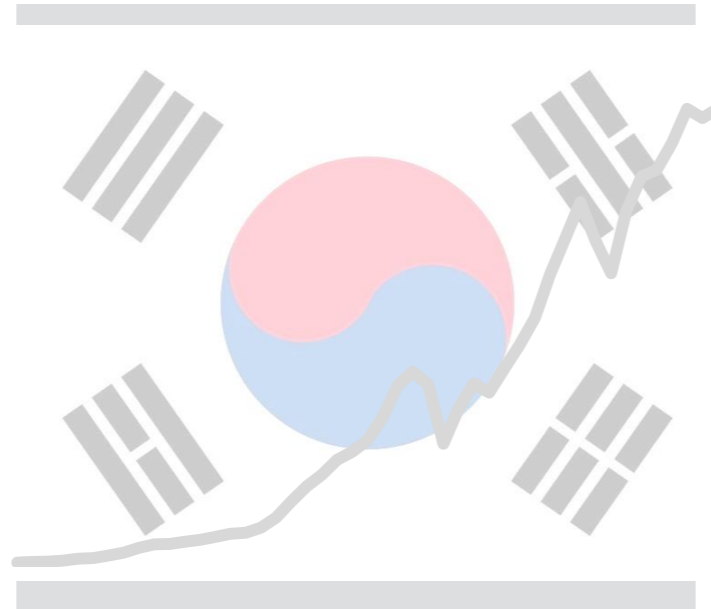
I 한국경제의 오늘을 가져온 경제발전 전략과 진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



퇴색



고도성장의 신화



퇴색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최근까지도 지속
정부-기업 간의
기본적 관계로 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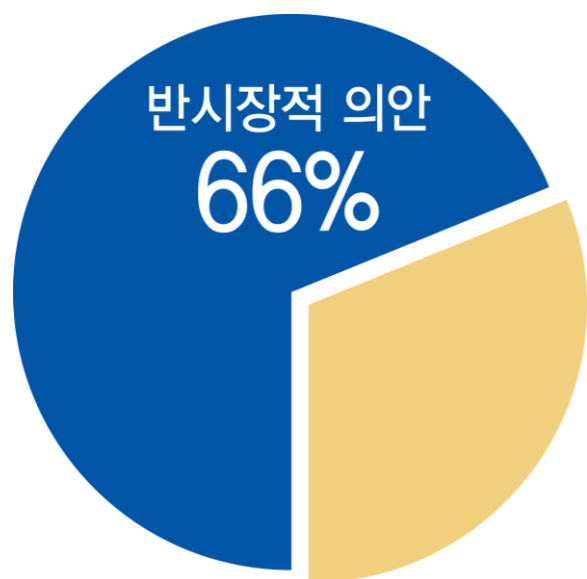
한국의 시장경제, 두 가지 기본인식의 오류(1)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반시장적 조류의 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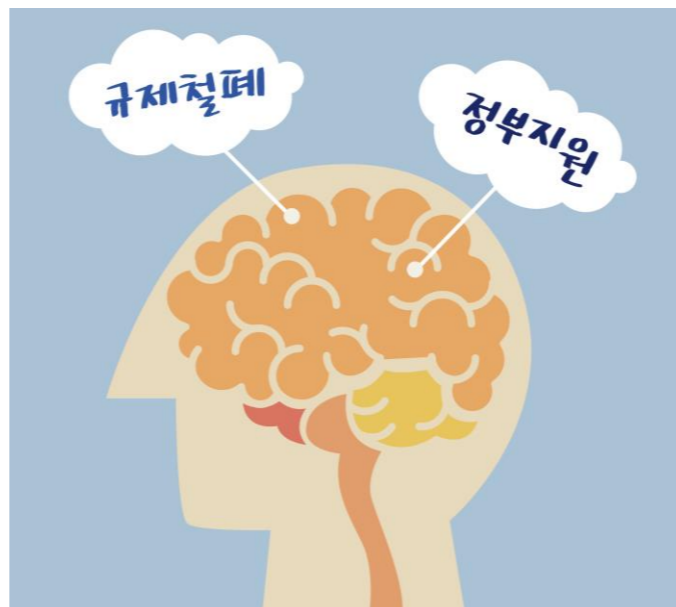
반시장적 입법, 행정

19대 국회 기업 및 시장관련 법률 중 66%가 반시장적 의안
(자유경제원, 2016)



국민적 인식

정부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에도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기 원하는 이중적 의식구조



정부의 인식

- ▶ 대중영합적 접근의 보편화
- ▶ 시장원리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기 보다 정부의 의도대로 결과를 확보하려는 경향



한국의 시장경제, 두 가지 기본인식의 오류(2)

시장경제는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 시스템?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벌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 司馬遷, 「史記列傳」 (BC 90년경) 중 貨殖列傳에서 발췌

Ⅰ 한국의 시장경제 : 바람직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



“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못지 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의 기업과 기업가정신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 정신

경제발전 초기의 대표적 기업가들

이병철(삼성그룹) 정주영(현대그룹) 구인회(LG그룹)



김우중(대우그룹) 박태준(포항제철)

사업보국

위기관리

인재육성

주목 받는 최근의 한국 기업가들

김범수(카카오) 이수만(SM엔터테인먼트) 윤종용(삼성전자)



서정진(셀트리온)

조성진(LG전자)

신산업

글로벌

전문경영

한국의 기업가정신, 이대로 가도 될까?



“ 기업가정신의 최고 실천국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다.
- 피터 드러커(1909 ~ 2005) 著, 「실천하는 경영자」 中 -

기업가, 기업가정신 : What, Why?



출처: 동아일보 만평 (2008.10.31.)

“ 미래가 미지(unknown)의 세계,
불가지(unknowable)의 세계,
예측이 너무 어려운(unpredictable) 세계라면
결국 글로벌 경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요소는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자본(Entrepreneurial capital)의
축적일 것

”

- Roberto Parente
(伊 살레르노대학교 교수)

| 한국의 기업가정신, 이대로 가도 될까?

기업가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길 꿈꾸는 사람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

- 로버트 슈러(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한국의 기업가정신, 이대로 가도 될까?

한국경제의 정체와 기업가정신의 문제

세계 부자 400명 중 65%인 259명이 창업가.
하지만 한국인 5명은 모두 재벌 2~3세 (2016년말 기준)



창업가 259명(65%)

기타 141명(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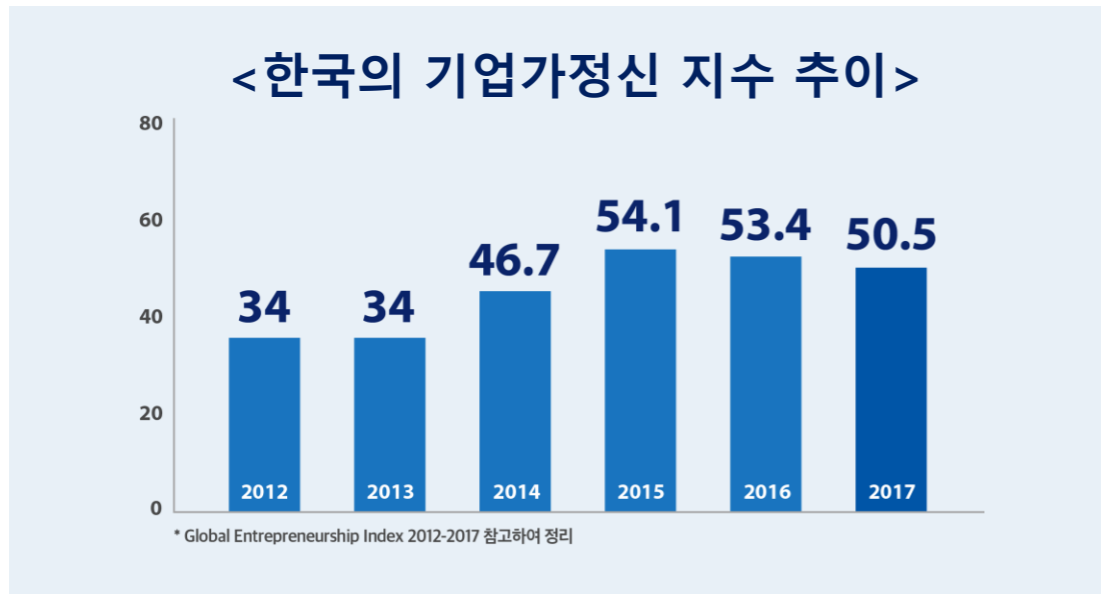
한국기업가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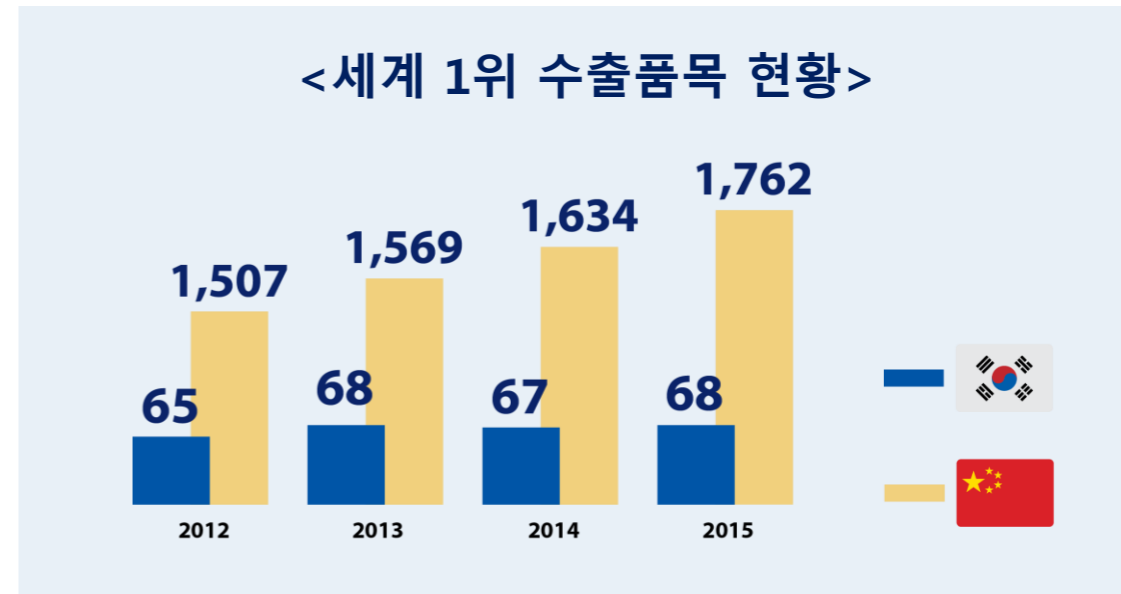
한국기업가
5명

한국의 기업가정신, 이대로 가도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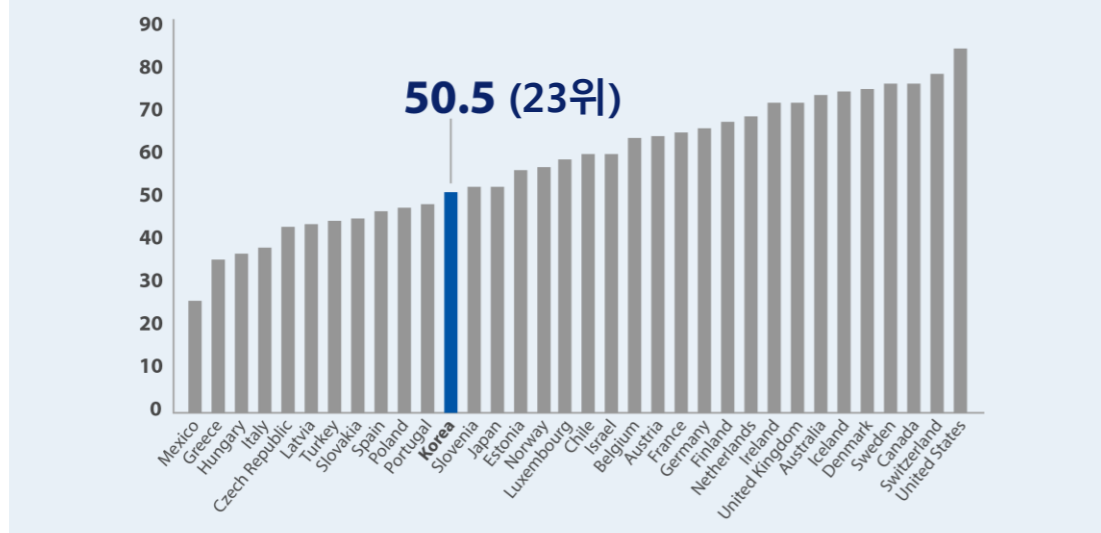
한국의 글로벌기업가지수(GEI) 순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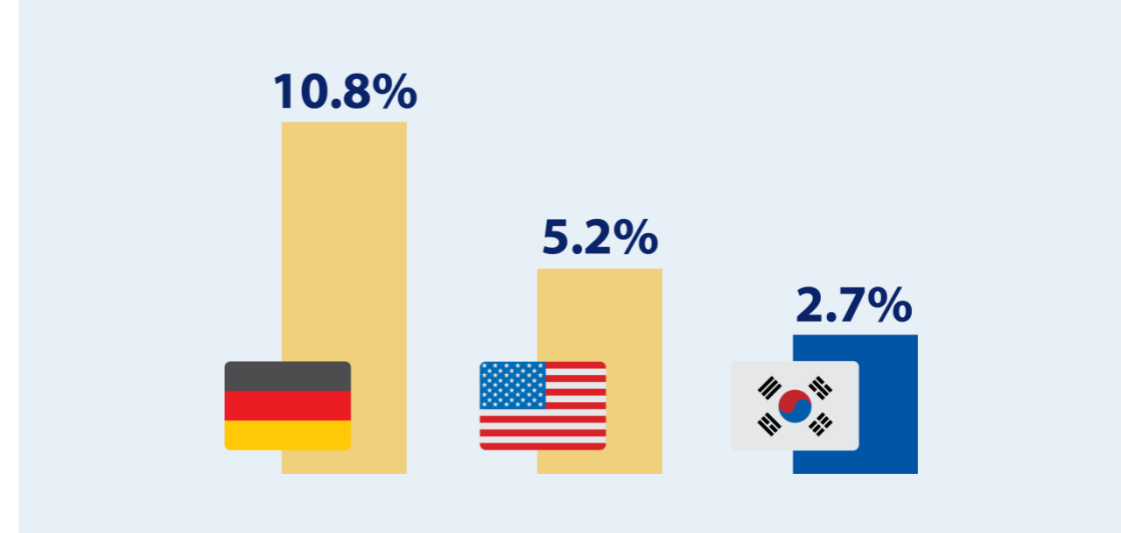
수출로 본 한국의 기업가정신



<OECD 34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현황(2017년)>



<전체 중소기업 수 대비 수출실적 있는 중소기업 비율>



| 한국의 기업가정신, 이대로 가도 될까?

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기업, 기업인의 인식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이 되어야 함



| 한국주식회사적 정부-기업간 발전 모델의 탄생

한국경제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지난 50여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



수출진흥 확대회의(1966~)



수출 100억달러 달성 기념식 (1977)

전경련 창립(1961~)



포항제철 착공(1970)

| 한국주식회사적 발전 모델의 지속과 종언

기존 발전 모델의 부작용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불가피



일해재단(598억원)

문재인 정부?



기업을 통한 대북지원송금
(4억 5천만달러)



미소금융 (10년간 2조원)
동반성장기금 (718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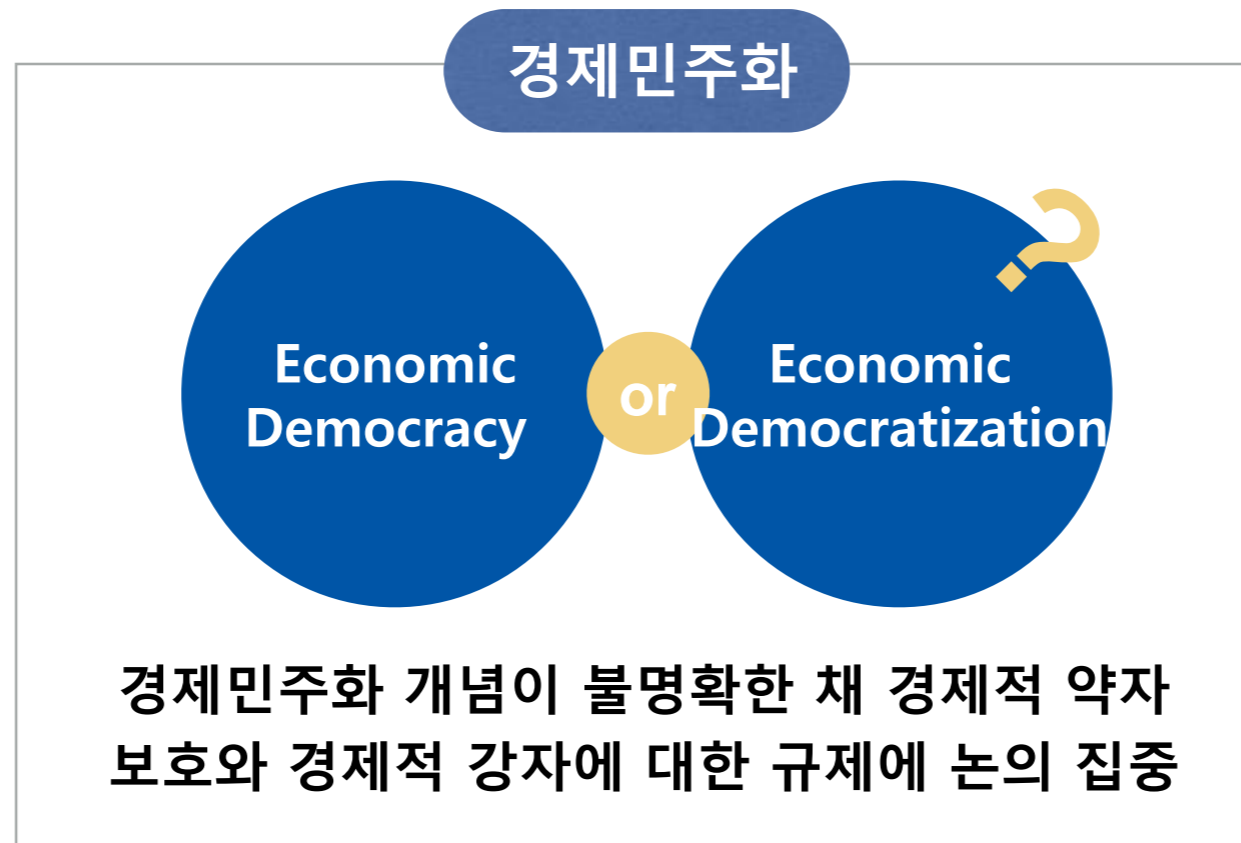
사회공헌 재단설립
(삼성 8천억, 현대차 글로벌비스 주식 1조원)



재단법인미르
MI-R FOUNDATION

청년희망펀드(880억원)
K스포츠-미르재단(80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I 경제민주화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경제민주화 논의의 바람직한 전개와 합리적 정책 대안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

I 재벌문제, 중소기업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재벌문제

Only
기업의 실패

정부의 실패

효율성의 문제인가 형평성의 문제인가?
규제의 강화인가 경쟁의 촉진인가?

경쟁의 촉진, 경쟁정책 테두리 안에서
대기업정책의 일관성 도모

중소기업문제

지원과 보호제도의
부재, 부족

중소기업정책
방향의 오류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를
정부의 지원과 보호로 해결할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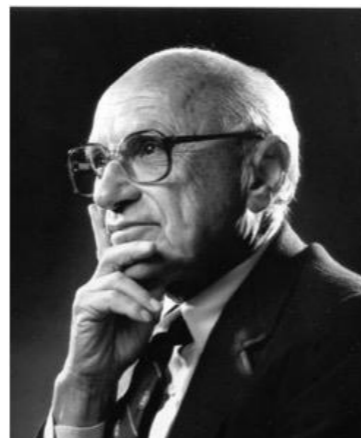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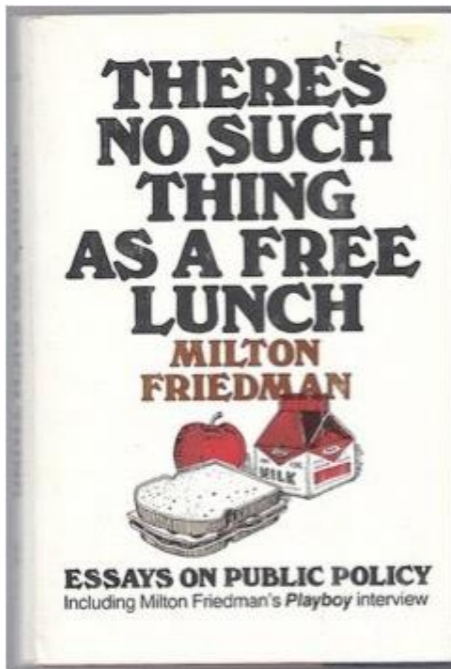
기업가 정신의 고취, 국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I 바람직한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정립 방향(1)

시장중심 정부와 기업 관계 재설정, "한국주식회사 신화"의 발전적 극복이 필요한 시점

정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원칙 정립



밀턴 프리드만
(1912~2006)

기업

정부의 신호보다 시장의 신호에 더 귀를 기울여야



| 바람직한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정립 방향(2)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통한 기업가형 국가 실현

정부의 과제

정부의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방향, 제도의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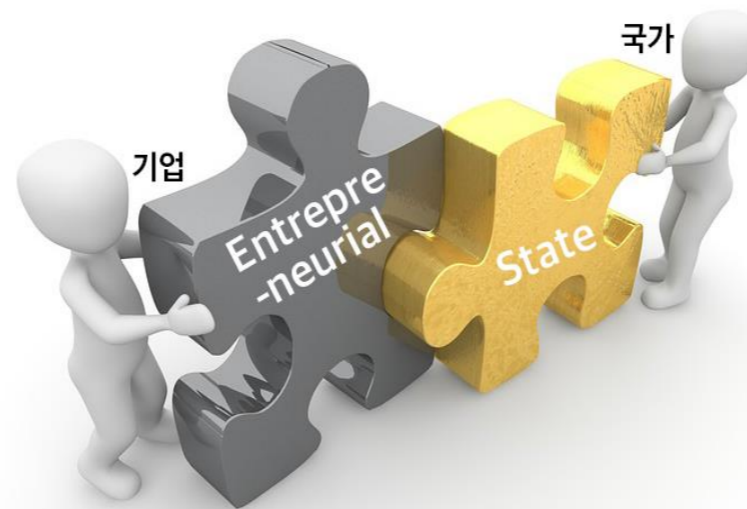
기업의 과제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발현



기업가형 국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



I Why 시장, Why 정부?(1)

☐ 시장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 ▷ 경제의 세계에서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 희소성의 법칙, 기회비용의 개념
-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수요공급법칙의 중요성
- ▷ 달란트의 비유(마태복음 25장)
→ Incentive & Penalty의 법칙 : 예수는 시장주의자?
-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 시장원리의 시공(時空)을 초월한 보편성, 유연성, 道에 적합

I Why 시장, Why 정부?(2)

□ 정부와 정부 역할에 대한 이해

-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 낸다. (K. Popper, 「열린사회와 그 적들」)
- ▷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나?
 - 현 정부의 정책기조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 M. Friedman,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나라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가 개인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 J. F. Kennedy,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요구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찾으십시오.”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
한국경제의 문제를 보면
해결의 "길"(Critical Path)이 보일 것임.

기업가형국가
시장으로의 귀환



- 감사합니다 -

